

사드 보복 불안... 무안공항 전세기기도 '스톱'

올들어 단 한편도 안떠...광주 여행사 중국여행 잇따라 취소 “중국 가도 되나” 문의 빗발 속 대중국 수출도 걸림돌 우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전격 들여오면서 중국의 보복이 강화되고 있다. 광주·전남에도 사드 배치 불용이 튀고 있다. 무안과 중국을 오가던 전세기는 울해들어 딱 끊겼고, 중국여행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8일 광주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관광 당국인 국가여유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오는 15일부터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여행금지 조치는 15일이지만 그 여파는 이달 들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의 A 여행사는 오는 21일 중국에서 20명의 관광객이 무안공항을 거쳐 광주에 오기로 했는데, 최근 국가여유국이 베이징의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행 관광상품

에 대해 전면적인 판매 중단을 통보하는 바람에 지난 3일 중국 관광객들이 여행을 취소했다.

이 여행사 소장은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해 오는 21일 광주로 오기로 했는데 취소됐다”며 “사드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피해를 가능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중국으로 가는 여행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신변안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B 여행사의 경우 오는 5월에 중국 정가계로 관광에 나서려던 1팀 10명이 여행을 포기했다. 다른 C 여행사도 마찬가지로 중국 여행을 떠나려던 3개팀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사드가 실제 배치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여행업계에는 중국 여행 가능 여부를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여행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무안과 중국을 오가던 전세기도 이륙을 멈췄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안과 중국을 오가는 전세기는 496편, 이용객은 8만725명이었다. 하지만, 울해가 이날 현재까지 전세기는 단 한편도 뜨지 않았다.

무안공항에는 정기노선만 운행되고 있다. 무안공항과 중국 상하이로 매일 1편씩 오가는 동방항공과 일주일에 2편 중국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아시아나항공이 전부다.

사드는 중국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

자는 “중국의 제재가 여행·화장품·문화 콘텐츠에 집중되다보니 반도체가 주력상품인 광주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중국의 제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여서 무역협회 차원에서 ‘중국무역 예외 특별상황반’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다오맥주의 매출 변화가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월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중국산 정다오맥주는 수입 맥주 중 2번째로 많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국제품 불매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다오맥주를 찾는 사람이 많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식 격납철판 보수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추진 영광 주민들 “원인 규명 먼저” 반발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2호기 격납철판 철판에서 발견된 미세 구멍과 부식 지점에 대한 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갈지 영광지역 주민들이 “선원인규명, 후 재가동”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8일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원전 측은 10개월간 정비를 벌여 부식 등 문제점이 드러난 2호기 격납철판 보수를 지난해 완료하고 조만간 규제 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승인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격납철판 부식 원인으로 제작 결함, 시공 문제, 해풍 영향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보수를 완료한데다 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기관 승인 후 재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원전 측 설명이다.

하지만 영광 주민 일부는 한빛 1, 2호기가 지난 1986년, 1987년 가동에 들어간 이후 원전인데다 격납철판이 원자로를 둘러싼 1.2m짜리 콘크리트 외벽과 함께 방사능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원인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빛 2호기 격납철판 철판에서 부식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계획에 방정비 중 상부인 원형 돔과 하부의 경

계 부위인 높이 68m 지점에서 부식 현상과 1~2mm 크기의 미세구멍 2개가 발견된 것이다. 통상 정비 기간은 60일가량이지만 원전 당국은 원인 규명을 위해 정비 기간을 연장했다.

원전 사업자 측은 1983년 건립 당시 상부와 하부가 분리된 채로 있으면서 외부에 노출돼 부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부식이 발견된 지점의 철판을 절단하고 새로운 철판으로 용접한 뒤 재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빛 1호기 격납철판 철판에서도 같은 부식 현상이 발견됐다.

원전 당국은 같은 노형에서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자 정비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고 국내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정비 기간 중 한빛 1·2호기와는 다른 노형인 한빛 3호기를 점검했지만 부식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정비에 들어간 고리원전 3호기에서는 부식 현상이 발견됐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재가동은 현재 신중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동준비가 완료되면 관련절차에 따라 규제기관 승인 후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포 등친 베트남 이주여성 고이자 미끼 11억원 사기

구례경찰청은 베트남 이주여성이 같은 국적 이주여성들에게 11억원 상당을 가로채 달아나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이주여성 A(42)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들로부터 약 11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주여성 15명에게 월 8~25%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벌여온 경찰이 40여일만에 ‘협이 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실버지킴이 활약 기대하세요

8일 광주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리 동네 실버지킴이’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힘찬 활약을 다짐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서구지역 49개 경로당 회원 1000명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실버지킴이들은 경로당을 거점 삼아 문화재 관리, 원로층 청소, 청소년 귀갓길 안전 도우미 등 동네별 실정에 맞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술취한 여성 성폭행 시도 혐의 현직 간부경찰 ‘무혐의’

현직 간부 경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40여일만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광주서부경찰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입건, 조사를 벌였던 A경감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월17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던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여성은 다음날 A경감을 강간 미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A경감은 직위해제됐다. A경감은 “위험에 노출된 여성을 선의로 모텔에 데려다 준 뒤 재빨리 현장을 벗어났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교조 “국정교과서 비치하려는 대동고 사과해야”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는 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취소한 대동고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동고 학생들은 1980년 당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대동고 출신 선배를 기리는 목념을 매년 5월 21일 올린다”면서 “이러한 학교의 관리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내용

을 축소하는 등 ‘국가폭력’을 숨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비치하고 학생들 손에 들리게 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관리자들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신청서를 보냈다”며 “반민주적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비치하려는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안군 공무원 자택 등 압수수색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안군 체육시설 사업소와 6급 공무원 김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적 재조사 관련 비리 의혹 등 무안군 안팎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무안 생태 갯벌유원지 조성사업, 김철주 군수 측근 비리 등 무안군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역사적 탄핵심판 5·18민주광장서 함께 해요”

박근혜퇴진운동본부 내일 행사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11시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TV생중계로 선고장면을 지켜보는 행사를 연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8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면서 “역사적인 심판 선고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함께 하자”고 참여를 독려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광장에 1t 화물차량에 대형 TV스크린을 준비하고 회원들

과 시민들과 함께 탄핵의 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회원, 시민들과 함께 나누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있다. 금남로에서 촛불을 든 수십만 시민들의 열연인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 측은 주말인 11일 금남로에서 열리는 제 19차 촛불집회에 앞서 ‘탄핵에서 탈핵으로’라는 주제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 문화행사를 벌인다. 촛불집회 주제와 내용은 탄핵선고 이후 성격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술 취해 자기 집인줄 알고... 옆집 들어가려 한바탕 소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50대 남성이 옆집을 자기 집 인줄 착각하고 들어가려다 현행범으로 체포.”

“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오후 5(9)시는 지난 7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아파트에서 옆집 번호키를 눌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대학생 정모(21)씨가 문을 닫으려하자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다는 것.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낮부터 술을 마시고 옆집을 내 집으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경찰은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면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오씨의 경우 한동안 열린 문을 붙잡고 소란을 피워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고 설명.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매가 1억1천만

010-7384-7800

동구 수기동 상가 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차 완비

▶매가 1억4천 (웅 5천)

062-527-7600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걸림)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아이티빌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사창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062-527-76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37억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토 48평, 건 160평
서부소방서 1분
4차선 도로 접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톨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광산구 송월동 (상가건물)
토 226평, 건 86평
광주 송정역 / 광산구청 1분
2차선 도로 접 / 코너 자리
▶감정가 14억5천 → 최저가 14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062-527-7600